

간송문화전 7부 : 올드앤뉴  
- 법고창신 : 현대작가, 간송을 기리다

◇ 전시해설 개요 ◇

- ◆ 전 시 명: 간송문화전 7부 : 올드앤뉴 - 법고창신 : 현대작가, 간송을 기리다
- ◆ 전시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배움터 2F 디자인박물관
- ◆ 전시기간: 2016년 9월 10일 ~ 2016년 10월 23일
- ◆ 전시내용: 간송 전형필 탄생 110주년을 맞아 간송미술관이 현대작가 33팀과 시도한 첫 번째 현대미술과의 협업 전시로 과거의 소재가 현재의 형식과 만나 이루어내는 동시대미술의 현주소를 조망하는 전시
- ◆ 전시구성: 조선시대 작품과 현대 작품을 교차 설치하는 올드앤뉴의 공간 구성
- ◆ 전시작품수: 33팀의 현대작가 작품 58점, 겸재 정선 작품 2점
- ◆ 해설시간: 30-40분
- ◆ 참여대상: 간송문화전에 관심이 있는 일반 관람객
- ◆ 담당도슨트: 권정현, 정선희, 정혜승

## < 현대작가 33팀의 작품 >

### 1. 기슬기, <Haze 01-05>,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39×39cm, 2010

사진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포착해서 순간적으로 기록해낸 매체이다. 따라서 사진의 세계는 객관적이고 사실에 충실하다. 그러나 사진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사진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맥락적이며 주관적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작가는 우리 시대의 문화 역시 객관적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의해 파악할 수 있을 뿐이며, 반드시 해석과 느낌을 동반한다는 의견을 사진으로 파악했다. <Haze>는 애매모호한 풍경이다. 그것은 먹으로 표현한 산수 같기도 하고 단순한 먹의 필치 같기도 하다.

### 2. 구범석, <겨울바다 : 혼돈(混沌)>,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00×67cm, 2016

구범석 작가는 사진 . 영상 . 특수효과 . 컴퓨터그래픽 등 장르를 불문하고 작업한다. 우리나라 고미술에 대한 재해석 작업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해왔다. 이번에 출품하는 작품은 외롭고 적막한 바닷가를 감정에 의탁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묘사한 바다 사진이다. 우리가 어렵거나 괴로울 때 바다를 가보곤 한다. 바다를 보면 넓게 트여있어 기분이 상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다는 고독을 배가시켜 기묘한 이중적 감정에 빠져들게 하곤 한다. 간송 전형필 선생님은 알려진 대로 많은 고초에 시달렸다. 문화재를 지키다는 일은 천만 근 무게보다 어깨를 짓눌렀으며 일제 강점기 . 한국전쟁의 시련을 이겨내야 했다. 그리고 안정이 겨우 다가올 때쯤에는 건강이 악화되어서 안타깝게도 일찍 서거했다. 구범석 작가는 바다, 특히 겨울바다의 이미지에서 간송 선생의 삶을 보았다고 한다.

### 3. 김기라 × 김형규, <새로운 세계화\_사상화 思象畵>, 5채널 4K 영상과 사운드, 6분 5초, 2015 <세기의 빛\_정토[淨土] 16-01>, 단채널 4K 영상과 사운드, 10분 14초, 2016

김기라 × 김형규는 영화감독과 현대미술가가 조합되어 새로운 창작의 시너지를 내리는 프로젝트 팀이다. 이번에 출품하는 작품은 <새로운 세계화\_사상화 思象畵>와 <세기의 빛\_정토[淨土] 16-01>이다. <새로운 세계화\_사상화 思象畵>는 실상사, <세기의 빛\_정토[淨土] 16-01>는 미황사와 대흥사에서 촬영한 것으로, 세 사찰에서 벌어지는 24시간의 일상을 360도 회전 및 타임랩스 기법으로 담아냈다. 인류학에서 원시성을 분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원시인들의 본질과 성격을 분석하면서 현재 인류에도 관통하는 본질을 얻고자 하는 방법론이다. 문제는 살아있는 원시인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런데 현시점에도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부족이 있다. 폴리네시아 원주민 . 오스트레일리아 에버리진 . 아마존 원시부족들은 살아있는 화석이다. 수천 년간 같은 방식의 삶을 유지한 이들을 분석하면 오히려 우리의 본질이 잘 드러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작가들은 사찰 승려들의 소탈한 일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삶을 유추해본다. <새로운 세계화\_사상화 思象畵>와 <세기의 빛\_정토[淨土] 16-01>는 단순하고 소탈했기 때문에 오히려 위대한 삶의 가치를 보여준다. 욕망과 감정을 내려놓을 때 밝게 찾아오는 우리 내면의 참된 본성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은 그러한 참된 본성을 찾고 닦아가는 삶을 살았다.

#### 4. 김길후, <금강전도>, 캔버스에 혼합재료, 1110×200cm, 2016

김길후 작가는 꽃이나 산수를 그리고 삶의 의미를 깨달은 현자들을 그린다. 필치가 단조로워 보이지만 기세가 세다. 단색으로 표현된 화면이 무겁고 어둡지만 보면 볼수록 깊이를 느끼게 한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은 <금강전도>이다. 작가는 서구적 표현주의 회화에 천착하다 겸재 정선의 깊이로 크게 감화되었다고 한다. 우리 회화는 사물을 바라보는 나와 객관적으로 보이는 대상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은 하나의 시공에 인연 지어졌다. 둘은 하나이다. 작가는 우리 산수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 5. 김다움, <마리>, 2채널 HD 영상과 사운드, 5분, 2016

문화를 창작하는 주체는 예술가이다. 따라서 개성과 정체성이 가장 존중 받는 미덕이다. 이 개성과 정체성에 한 개인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것은 타인과 나눌 수 없는 자기만의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최근의 풍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마치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구슬궤미처럼 한 개인은 개성 있는 고유의 특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주관주의적 거울이다. 김다움 작가의 <마리>는 타인의 음악을 절취하여 나의 음악을 만드는 현시점의 문화현상을 파고 들었다.

#### 6. 김동현, <통천문암>, 캔버스에 유채, 130×54cm, 2016

##### <명월관>, 캔버스에 유채, 190×70cm, 2016

김동현 작가는 우리 시대의 걸그룹 여성멤버들이나 젊은 세대 인물들을 화면에 재구성해낸다. 각기 다른 사진들을 모아서 하나의 화면에 조합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화면에서 빛의 근원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그야말로 난반사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가 갖는 참된 의미를 알 수 없다. 어떠한 기류와 분위기에 휩쓸려 표류하는 것만 같다. 그것은 바로 욕망의 코드이다.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물신화되는 분위기에서 삶의 의미는 덧없다. 작가는 겸재 정선의 <통천문암>을 선택했다. 겸재 선생이 서거하기 바로 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최만년의 특의작이다. 생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마지막으로 그렸을 것이다. 김동현 작가의 주인공들은 겸재의 통천문암 속으로 마치 시간 여행하듯 들어간다. 혼란스러운 현재는 고즈넉한 옛 분위기와 대조를 이룬다. 작가는 물신과 욕망 코드 외에 우리가 잊고 사는 가치를 다시 찾고자 한다.

#### 7. 김서, <Untitled(西登)>, 캔버스에 유채, 145.5×112.1cm, 2016

##### <Untitled(香爐)>, 캔버스에 유채, 145.5×112.1cm, 2016

김서 작가는 개념주의 미술의 선상에서 인간 . 사회 . 문화의 구조를 분석한다. 이번에 출품하는 작품은 조선시대 최고의 서예가인 석봉 한호의 <등여산망폭포수(登廬山望瀑布水)>에 대한 오마주이자 현대적 재해석이다. 천재 서예가 석봉 한호의 필치는 아직도 우리에게 생생하다. 감동적이다. 그것은 우리 앞에서 살아 숨쉰다. 그 지극하고도 생생히 살아있음을 찬사한 것이 이번 작품이다. 사람 피부색 바탕에 붉은 핏빛으로 글을 썼다. 아직 마르지 않고 흐르는 뜨거운 피처럼 한호의 글은 여전히 살아 숨쉰다는 내용이다.

**8. 배정완 & 황상연, 조진옥, 김아름, <'지난 이야기를 듣고 보면 간송은 참 멋진 사람이었을 것 같다 (후에 언젠가 만날 때 즐겁게 얘기할 것이다)'>, 아크릴, STS , LED , 엘립소이드 , 빔프로젝터 , 패브릭, 스피커, 가변설치, 2015-2016**

배정완 작가는 영상 . 조각 . 설치를 적절히 조화시켜 시간 . 공간 . 인간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웅크리고 앉아 있는 인간 조각은 고뇌하는 우리를 표현했다. 아크릴 설치에 투사된 파도 영상은 영원성을 상징한다.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뇌한다. 파도의 시간은 이에 비해 영구적이다. 인간은 죽음을 잊기 위해 문화라는 것을 만들었다. 작가는 인간의 시간과 파도의 시간이 극명히 대비시키면서 문화의 시작점을 상기시킨다.

**9. 백남홍 × 백정기, <동종주술: 홍매화>, 한지 위에 전도성 잉크, 목재, 금속, 송신기, 사운드플레이어, 혼합재료, 140×180×330cm, 2016**

백정기 작가는 설치미술가로서 미술계의 주목을 받는 작가이다. 이번에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목매화가 조희룡의 <홍매>를 그리고 이 매화 그림을 라디오에 연결한다. 매화 그림을 전도성이 있는 잉크로 그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림 자체가 라디오의 안테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매화 그림이 임의적으로 이끄는 대로 라디오 소리를 듣게 된다. 매화 그림의 형태와 전도성 안료의 분포에 따라 주파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좋은 그림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느낀다. 기운생동이라는 표현이 이를 잘 대변해준다. 시각의 세계가 소리의 세계로 전환되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이내 화면의 우아한 세계에 안착하게 된다. 이 매화 그림은 작가의 아버지 백남홍 선생이 그린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교감은 세대와 세대로 이어지는 교감을 상징한다.

**10. 손종준, <Defensive Measure 2013>, 디지털 프린트, 110×73cm, 2006**  
**<Defensive Measure2013-01>, 알루미늄, 50×40×30cm, 2013**  
**<Defensive Measure2014-03>, 알루미늄, 50×40×30cm, 2014**  
**<Defensive Measure2015-06>, 알루미늄, 45×40×50cm, 2015**  
**<Defensive Measure2016-01>, 알루미늄, 모니터, 95×150×30cm, 2016**

손종준 작가는 인간이 외부세계나 타인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보전하려는 보호기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이를 영어로 'defensive measure'라고 한다. 나약한 여인 . 어린 유소년 . 신체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보호적 기제가 필요하다. 작가는 비단 물리적 . 신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가치적인 면에서도 보호 기제가 필요하다. 손종준 작가는 간송 전형필 선생의 업적과 정신적 유훈을 길이 보전하려는 의도에서 선생의 영상에 보호적 기제를 설치했다.

**11. 송현주, <간송- 전형필 澗松-全鑿彌>, 캔버스에 아크릴과 유채, 73×91cm, 2016**  
**<사필귀정 (事必歸正)>, 캔버스에 아크릴과 유채, 73×91cm, 2016**  
**<비각 (碑閣)>, 레진, 인큐베이터, 이끼, 나무, 혼합재료, 2016**

송현주 작가는 역사의 한 장면을 연필로 정밀 묘사하거나 플라스틱 장난감 모형으로 추상적 회화

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한편 플라스틱 . 레진으로 만든 미니어처 세계를 제작하기도 한다. 이번에는 간송 전형필 선생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실크스크린으로 표현했다. 어느 날 일제 강점기의 총독인 미나미 지로(南 次郎)가 간송 전형필 선생을 찾아왔다. 간송 선생은 총독을 일부러 두어 시간을 기다리게 했다. 무서운 권력이 눈앞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것은 간송 선생의 확신 때문이었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이었다. 간송 선생은 우리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있다. 이와 대비적으로 미나미 지로는 전범 재판에 회부되어있다.

## 12. 신수혁, <Untitled 1601>, 캔버스에 유채, 227×182cm, 2016

신수혁 작가는 극도로 절제된 화필로 우리가 살고 있는 풍경을 그린다. 화필에 어떠한 감정도 배어나지 않고 구도를 구성할 때 개인적인 모티브와 스토리를 자제하기 때문에 작가의 화면은 오히려 현상 이면에 있는 본질 의미를 묻는 것 같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세계는 의지의 세계가 있고 표상의 세계가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세계는 표상의 세계다. 일상을 넘어선 세계는 의지의 세계다. 정념의 살을 바르고 의지의 뼈로 일관할 때 드러나는 세계다. 회화 세계에서 의지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작가의 작업이다. 작가는 이번에 <Untitled 1601>을 출품한다. 창살 건너편 벽으로 또 다른 창살이 보인다. 두 개의 맞은 편 창살만을 그림으로써 그림은 기하학적 격자로 보이게 된다. 부분 속에서 전체의 본질을 느끼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이다.

## 13. 신이철, <청화백자사이보구용문대호靑華白瓷思利寶具龍紋大壺>, 백자토, 50×30×30cm, 2016

신이철 작가는 순수한 형식의 도조 작업을 해왔다. 살아있는 유기체의 생명성을 암시하는 한편 도조 작업이 갖는 형식주의 문제도 첨예하게 다루었다. 작가는 또 다른 장으로 우리를 안내한 적이 있다. 바로 우리의 추억을 도조로 재현한 것인데, 벌써 10여 년이 흘렀다. 우리가 어릴 적에 체험하고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을 도조로 살려 소환한 것이다. 이번에 출품하는 작업 <사이보구용문대호思利寶具龍紋大壺>는 청화백자 용문 항아리이다. 용항아리라는 애칭을 가진 조선시대 백자들은 주로 왕실에서 사용되었다. 용은 임금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발톱이 5개이면 왕을 상징하고 4개면 왕실을 상징한다. 3개면 반가(班家)를 상징한다. 신이철 작가의 용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로봇 용이다. 발톱이 3개이다. 엄숙한 의식에 사용되는 용항아리에 위트와 해악을 담아 우리 시대의 자유롭고 즐거운 일상을 표현했다.

## 14. 신형섭, <오래된 미래>, 환등기, 디졸브 콘트롤러, 발견된 오브제, 가변설치, 영상 , 2016

신형섭 작가는 뉴욕에서 활동하다 귀국한 개념주의 미술가이다. 이번에 환등기 두 대를 이용해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 디졸브 콘트롤러는 투사된 이미지를 페이드 아웃시키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이미지를 오버랩시킨다. 문화 . 문명 . 간송미술관 . 간송 전형필 선생의 미지지가 오버랩되면서 문화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려는 의도이다. 간송미술관에서 채집한 나뭇잎 . 깃털 . 먼지 . 이끼 . 전시 로고 글씨 등 온갖 사물들이 슬라이드 필름에 부착되고 이 부착된 이미지들은 빈 공간에 투사된다.

**15. 유비호, <바람의 노래>, 2채널 영상과 사운드, 42분 14초, 2015**

유비호 작가는 국내외적으로 주목 받는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작가의 현실 인식은 매우 쓰라리고 진중하다. 이번 작품은 우리의 고유의 성악인 정가(正歌)를 모티브로 삼았다. 유비호의 카메라는 죽은 망자의 관점에서 우리 현실을 둘러본다. 사회적 분열 . 심각한 재화의 불균형 . 권력 편중에서 오는 우리의 난제들을 망자(조상)은 매우 슬프게 바라본다. 모든 슬픔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망자는 현세 인간들이 이기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다 대승적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16. 유승호, <낭만에 대하여>, 종이에 잉크, 160×66.7cm, 2012-2013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종이에 잉크, 160×122cm, 2009-2012**

유승호 작가는 한글과 영어 단어를 중첩시켜 동서양의 명화 이미지를 재현해낸다. 우리는 작가의 회화에서 글자를 보고 소리를 낼 수 있다. 글자는 중첩되어 그림의 밝음과 어두움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글자의 모임과 흩어짐에 따라 그림의 점 . 선 . 면이 되어 명화 이미지를 재구성해낸다. 이번 출품작은 겸재 정선의 <충석정>과 <통천문암>을 선택했다. 겸재 선생의 대표적 특의작이다. 유승호 작가의 글씨로 재현된 겸재의 모티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글씨로 된 풍경이다 보니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17. 윤기원, <간송 전형필>, 캔버스에 아크릴, 162×130cm, 2016**

윤기원은 단순한 선묘로 인물의 특성을 포착하고 화려한 배경 색으로 인물의 개성을 암시해주는 팝아트 인물 페인팅을 선보여왔다. 이번에 출품하는 작품은 간송 전형필 선생의 오마주 페인팅이다. 재미나게도 간송 선생의 청년기 모습 두 점을 그린다. 하나는 휘문고 시절에 야구선수로 활약 하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와세다 대학 재학 시절의 모습이다. 간송 선생은 이 행복했어야 할 시절에도 늘 고독을 느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 시절 암울한 조국의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림을 통해 우리 문화 수호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초창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18. 이상용, <운명>, 베틀에 부조, 2016  
<운명>, 철, 돌, 68x96x56cm, 2016**

이상용 작가는 베틀에 드로잉을 새긴다. 베틀은 차갑고 단단하지만 그 위에서 우리나라 글씨와 그림의 바탕이 되는 안료인 먹이 생긴다. 먹은 붓에 입혀져 글과 그림이 된다. 어찌 보면 베틀은 문방사우 중에서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이다. 작가는 그래서 베틀이 차갑고 단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베틀에 우리나라의 고유의 정서를 새기는 것이 작가 작업의 핵심이다. 작가는 인생 찰나의 매 순간마다 만나는 모든 대상을 베틀 안에 새긴다.

**19. 이세현, <Between Red-016JUL01>, 리넨에 유채, 250×250cm, 2016**  
**<Between Red-016AUG01>, 리넨에 유채, 250×250cm, 2016**

이세현 작가의 붉은 산수는 원근법에 충실한 서구적 풍경화가 아니다. 검재 정선의 삼원법과 우리나라 과거사의 흥망성쇠가 몽환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작가의 산수가 붉은 이유는 적외선 카메라로 보았던 DMZ의 풍경이라기보다 우리나라의 아팠던 역사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총체적 메타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순간을 치열하게 살았던 역사적 실존이나 무명의 대중들이 화면에 부유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풍경은 처절하게 아름답다. 아팠던 삶을 살다 떠난 영혼들과 아름다운 풍경은 몽환처럼 아찔하다.

**20. 이원호, <진품명품傳>, TV진품명품 출장감정에서 구입한 사물들(도자기, 그림, 마패, 서예, 수랍장 등), 나무, 흰색페인트, 영상 60분, 가변설치, 영상, 2015**

이원호 작가는 개념주의 설치작가이다. 이번에는 <진품명품傳>을 선보인다. 이 작업은 작가가 직접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현장을 찾아가 출품자들의 사연을 취재하고 가짜로 판명된 작품들을 흥정해 사오는 프로젝트이다. 유물 혹은 문화재, 골동품을 수집하거나 사고파는 일에 언제나 개입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재화적 욕망이다. 이원호 작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각기 다른 욕망을 알게 된다. 궁극적으로 간송 전형필 선생의 문화재 수집 목적은 차원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극명히 드러난다.

**21. 이이남, <박연폭포>, 4채널 영상과 사운드, 7분 30초, 2011**

이이남 작가는 동서양의 명화에 애니메이션 기법을 이용해 움직임과 스토리를 입혀 시각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한다. 이번에 출품하는 작품은 검재 정선의 <박생연>이다. 검재 정선의 <박생연>은 정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폭포의 낙하 소리가 들릴 듯 생생하다. 이이남 작가는 검재의 <박생연>에서 느꼈던 감동을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재현한다. 폭포가 쏟아지면서 소리가 들리며 그림 속 사람들도 정자 옆에서 폭포를 관망하면서 서로의 소감을 묻는다.

**22. 이창원, <간송의 기억>, 골동품 경대, 거울 위에 유리용 페인트 그림, LED 조명, 좌대, 400×160cm, 2016**

이창원 작가는 주옥 같은 설치개념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설치미술가이다. 특히 거울 설치 작업이 유명하다. 거울에 네거티브 이미지를 그리고 빛을 거울에 비추면 거울은 포지티브 이미지를 반사하게 된다. 이 반사된 빛은 벽면에 상을 맺는다. 간송 전형필 선생의 프로필 사진과 검재 정선의 <단발령망금강> . 탄은 이정의 <풍죽>의 이미지가 벽면에 비추게 된다. 거울 이미지는 명료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서구철학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물에 비춘 이미지 . 거울 이미지나 그림 속의 이미지는 실재가 아니라고 비판해왔다. 우리 시대에서는 오히려 이미지가 갖는 피상성이 예찬 받는다. 작가는 진실과 가상 사이의 존재론적 물음을 넘어서 이미지가 넘쳐나는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정보적이며(informative) 진정한(authentic) 이미지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진다.

- 23. 이하린, <Youth>, 조형토, 청자슬립, 청자유, 차이나페인트, 러스터, 34×22×44cm, 2013**  
**<매병>, 흑토, 백유, 차이나페인트, 러스터, 29×53×29cm, 2016**  
**<화병>, 자기토, 청자토, 청자유, 차이나페인트, 러스터, 24×45×24cm, 2016**

이하린 작가는 우리나라 고려청자와 옛 그림의 인물화를 연구하면서 우리 시대의 청자 인물상을 만들었다. 작품 속의 인물은 어떤 특정 개인이라기보다 현대인 전체를 대표하는 것 같다. 표정이 천진난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희로애락의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은 채 중화되어 있다. 먼 풍경을 응시하는 인물은 근거 없이 고독한 우리를 닮았다.

- 24. 장우석, <과로도기에 대한 진술서>, 알루미늄에 유채, 120×180cm, 2016**  
**<해설자희에 대한 진술서>, 알루미늄에 유채, 120×180cm, 2016**

장우석 작가는 붓질로 대상을 정확히 묘사한 후 도장을 파서 유화에 찍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전면적인 회화일 때가 많다. 그것을 올 오버 페인팅이라고 한다. 시대의 가벼움 . 무방향의 혼돈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작가는 두 개의 진중한 작업을 재해석한다. 하나는 단원 김홍도의 <과로도기>이며 또 하나는 현재 심사정의 <해설자희>이다. 두 작품 모두 도석인물화로 탈속의 경지를 보여준 도인들이다. 끊임없이 수행하면서 중생을 도와주는 두 명의 탈속적 영웅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작가는 자기의 이기적 효율성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의 삶을 살다 간 영웅을 기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간송 전형필 선생도 이와 비슷하다면 비슷하다. 선생은 일평생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의인이며 문화적 독립을 꿈꾸었다. 도석 인물의 극적인 모습이 이 시대에도 있다면 바로 수많은 의인들의 삶의 모습일 것이다.

- 25. 장재록, <Another Landscape-forest>, 캔버스 위에 한지, 먹, 아크릴, 259×193cm, 2016**

장재록 작가가 생각하는 동양화는 자연의 재현도 아니고 심성의 표현도 아니다. 자신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정감과 믿음의 끝없는 훈련에 다름 아니다. 동양화는 테크닉인 동시에 인격의 수양이고 도덕적 삶의 구현이다. 고양된 삶 그 자체였다. 작가는 동양화의 마음을 견지한다. 그러나 픽셀화된 현대적 방법으로 이미지 세계를 다룬다. 매질은 고전적 동양화인데, 내용은 극단적으로 합리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작가는 우리 시대의 장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짚어낸다. 작가는 이번에 간송미술관 보화각의 주변 풍경을 그렸다. 픽셀화된 보화각 주변 풍경을 동양화로 표현하면서 합리성과 순수감각 사이의 괴리감을 표현해낸다.

- 26. 장종완, <백호와 복서>, 가짜 백호 가죽위에 유화, 130×220cm, 2016**

장종완 작가는 마치 한편의 연극각본을 짜고 연극무대를 만들듯이 그림을 그린다. 작가의 그림 속에는 자연의 섭리와 생태계의 규칙이 허물어져있다. 엉뚱하고 낯선 조합이 연속을 이루며 만들어낸 일종의 파라다이스 풍경이다. 이번에 출품하는 작품은 <백호와 복서>이다. 가짜 백호 가죽에 한반도의 풍경과 골프장을 그렸다. 그러면서 은퇴한 어느 복서가 백호를 기른다는 있을법한 서사를 설정했다. 화려한 조명을 받다 은퇴한 복서는 인생을 무상함을 관조한다. 복서가 기르는 백호 역시 주인을 헤치려 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평등 . 평화의 원칙이 환상적 시점을



통해 구현된다.

**27. 정주영, <인왕산 No.8-1>, 리넨에 유채, 145×135cm, 2008**

**<인왕산 No.8-2>, 리넨에 유채, 145×135cm, 2008**

정주영 작가 서울 근교의 산을 그림으로써 전통과 현재의 의미를 묻는다. 정주영 작가의 풍경은 그 시점이 겸재 정선의 시점과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산을 대하는 태도와 애정도 겸재와 유사하다. 그것은 겸재에 대한 예찬인 동시에 우리 시대 예술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작가는 <인왕산> 시리즈를 출품한다. 겸재 시대에서나 우리 시대에서나 인왕산은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있다. 산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과거에 산은 만물이 모여있는 성스러운 이치 그 자체였다. 지금의 그것은 관조의 대상이거나 물질적 이용의 대상 정도로 생각한다. 과거에는 평생의 회화 수련이 평생 농익어야만 그림을 그렸다. 지금은 사진을 이용하거나 활용한다. 이 둘 사이의 방법과 세계관 속에서 작가는 고뇌한다.

**28. 정진원, <Accumulation>, 백자토, 23×11.4×6cm, 2016**

**<서산대사 계송시>, 조합토, 백토분장, 청화, 15×12.2×7.2cm, 2013**

**<노자 『도덕경』 8장>, 조합토, 백토분장, 청화, 30×5×6cm, 2015**

정진원 작가는 청화백자에 옛 문구를 새겨 넣었다. 청화백자는 조선후기에 찬연히 꽃피웠다. 청화백자는 청렴하고 소탈했던 옛 사대부들의 정서를 대변해준다. 옛 선비들은 우리 시대의 물질만능과 물신의 풍조와는 격이 다른 삶을 살다 갔다. 작품에 새겨진 '인생은 뜬 구름과 같다.'는 문장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하나를 얻고 또 중요한 무언가 하나를 잃었다. 작가의 작품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우리를 반성하게 한다.

**29. 정희승, 무제(간송미술관),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83×108cm, 2016**

정희승 작가는 수많은 인연이 부지불식간에 만들어낸 시공간의 의미를 정서적으로 포착해낸다. 일 년에 두 차례 전시회가 열렸던 간송미술관 보화각은 현재 닫혀있다. 작품 진열장은 모두 비워있고 평소 닫혀있던 보화각 덧문은 열려있다. 작가는 여러 번 덧칠된 벽과 창틀, 그리고 수많은 관람객이 매만져서 윤이 나는 보화각 대리석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 공간은 매우 역사적인 공간이다. 역사적 사건이 누적된 특수한 공간이다. 낡은 문틀과 바닥에 쌓인 먼지, 그리고 대리석에 윤기를 배게 한 사람들의 손 스침이 대조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보화각의 역사가 갖는 무거운 의미는 잊혀진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다.

**30. 지지수, <주기도문>, 캔버스에 유채, 252×162cm, 2016**

지지수는 <Father still life> 연작으로 알려진 작가이다. 18세기 서구 정물화는 삶은 덧없다는 메타포가 강했다. 메멘토모리(memento mori), 즉 '죽음을 기억하라.'로 유명한 이 말의 깊이는 정물화에 유감 없이 드러난다. 화려한 꽃, 과일, 우리를 환희로 이끄는 와인은 모두 일시적이며 영원

하지 않다. 지지수 작가는 이를 언급하면서 삶의 무상함을 화면 뒷면에 열게 칠한다. 앞에는 어릴 적 본인이 그렸던 어릴 적 드로잉을 재현해낸다. 열은 화면으로 처리한 그림의 배경은 무상함이지만 강렬하게 채색한 그림의 앞면은 유아기의 진실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번 작품의 배경은 <금강내산> . <단발령망금강>이다. 앞면에는 어릴 적 드로잉을 재현했다. 서구 정물화와 어릴 적 드로잉이 무상함 대 진실함의 모순 관계였다면, 겸재 산수화의 영원성과 어릴 적 드로잉의 진실함의 구도는 서로 부합하는 화합의 구도이다. 이러한 구도로 작가는 겸재를 예찬한다.

### **31. 진희란, <백운산장>, 순지에 수묵담채, 179×103cm, 2015**

**<백록담>, 순지에 수묵담채, 162×65cm, 2016**

진희란 작가는 진경산수를 그린다. 진경산수는 실경산수와 다르다. 진경산수는 풍경 속을 직접 체험하면서 풍경과 교감했던 정서를 고스란히 담는 작업이다. 따라서 풍경에 감동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사실과 같게 그리려는 목표를 뛰어넘는다. 근래의 회화는 사진에 많이 의존한다. 기억의 불완전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진은 무엇인가? 0과 1이라는 이진법이 조합해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산물이다. 그것은 합리성의 최전선을 달리는 과학주의의 총아이다. 진경산수는 나의 내면과 경물이 하나가 되는 체험 없이 불가능하다. 진희란 작가는 이 시대를 사는 젊은 작가이면서도 우리가 잃어가는 옛 사람의 소중한 세계관을 추체험하면서 삶과 예술의 의미를 찾아간다.

### **32. 코디 최, <VIRTUE714>, 캔버스에 유채, 120×173cm, 2015**

코디 최 작가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개념주의 미술의 대가이다. 작가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야 올바른 것인지 일평생 질문하면서 매달렸다. 우수한 작품이 무수히 많지만 이번에는 명심보감 연작 중 <VIRTUE714>을 출품한다. 명심보감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는 보물과도 같은 거울이라는 뜻이다. 명심보감의 주옥 같은 문구들은 희로애락과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로부터 벗어나 우리 내면의 본연을 회복하자는 내용이다. 밝은 내면의 회복이야말로 일평생 견지해야 할 과업이라는 것이다. 이 문구들을 반복해서 화면에 쓸 때 오히려 회화의 화면은 어두워지고 모호한 추상의 형태가 된다. 마음의 본연을 잃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만 가는 우리 시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 **33. 최현준, <신인왕진경팔폭>, 디지털 피그먼트 잉크 프린트, 40×150cm×8점, 2016**

최현준 작가는 화가들의 오마주 작업을 선보였던 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수화 김환기 선생의 청색 시대에 헌정하는 바다 사진 연작이 그것이다. 이번에는 국보 216호인 겸재의 <인왕제색도>에 감동을 받았다. 겸재 선생이 몸소 누볐을 인왕산 자락의 산길을 실제로 같은 시점으로 이동했다. 팔 폭으로 구성한 이 사진 연작은 겸재에 대한 헌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세로부터 느낀 깊은 감화를 모티브로 삼았다. 일억 화소의 고화질 사진 연작에서 작가가 느꼈을 인왕산의 생생한 감동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다. 작품명을 <신인왕진경팔폭>이라고 지었다. 겸재 선생이 보았을 바위를 작가도 보았고, 선생이 매만졌을 소나무에 작가도 기대어보았다. 선생이 쉬었을 정자에 작가도 앉아보았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지만 미적 향유를 함께하

는 일에서는 간극도 사라지게 된다.

### < 겸재 정선 작품 >

#### 1. 정선, <풍악내산총람>, 견본채색, 100.8x73.8cm

<풍악내산총람>은 진경산수화풍의 창시자이며 대성자인 겸재의 절정기 특의작으로 가을의 내금강 전경을 화폭에 압축해 넣은 그림이다. 금강산 일만이천봉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어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환히 알고 있던 정선이었기에 가능한 구도이다. 여러 바위 봉우리들을 서릿발 같은 상악준으로 처리하여 금강산의 기이하고 깎아지른 듯한 험준함을 표현했고 이를 둘러싼 토산은 피마준과 미점만으로 부드럽게 처리하여 음양의 조화를 이루었다. 곳곳에 절과 암자를 배치하되 산세와 수맥에 거스름이 없고 그 규모도 산을 해치치 않을 만큼 절제되어 있다. 진경의 정확성을 제대로 보여준 명품이다.

#### 2. 정선, <통천문암>, 지본수묵, 131.8x53.8cm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3종류의 <문암> 그림 중 최만년기의 작품이다. 물결은 하늘과 맞닿아 땅위에 균림하고 먼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흐르는데 거대한 바위산이 육지로 들어가는 문인 듯 우뚝 솟아 파도의 침노를 막고 있다. 그 사이를 동자 하나만을 데리고 나선 단출한 선비의 행차와 말타고 구중 잡힌 호사스런 행차가 함께 지나고 있다. 어느 한 순간의 사생이라기보다 이전의 사생을 토대로 이상적인 가경을 구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만년으로 갈수록 이러한 이상화의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 그림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